

## 공동체로 산다는 것\_크리스틴 폴

*완벽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오늘 당신의 공동체를 충분히 누리라.*

- 장 바니에, 《공동체와 성장》(Community and Growth, 성바오로 출판사)

교회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다. 동일한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신앙 공동체이다. 사회 공동체와 비슷한 유형의 공동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는 근본적으로 사회 공동체와는 다르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흘리신 값으로 사신 것이며(행 20:28),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아 만물 위에 세우셨다(엡 1: 22-23). 교회의 본질적인 위상은 현재 추락한 교회의 실상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교회 그 자체로 거룩하고 존귀한 것이다.

이 시대의 악한 권세들은 교회가 올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악한 권세들이 교회가 가진 본질적인 위상을 실추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교회 안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 왜냐면 교회로 모인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악한 세력의 유혹과 꾀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은 교회를 이루는 성도의 본질이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날마다 자신이 새로운 존재임을 믿고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이 《공동체로 산다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고 올바르게 세워 나가기 위한 중심이 '실천'이라고 설명한다(p. 13). 책에서는 서로 약속을 지키는 것, 진실하게 살고 진실하게 말하는 것, 감사를 표현하는 것, 남을 대접하는 것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실제 예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한다. 다만, 이 책이 아쉬운 것은 실천만을 강조함으로써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는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책의 앞 부분에 실천을 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들이 나오긴 하지만, 내용이 다소 빈약하다. 교회의 올바른 '이해'와 '앎'을 바탕으로 한 실천, 즉 믿음의 행위가 있을 때 교회가 이 시대의 빛(요 8:12)으로서 세상을 밝힐 수 있다.